

# 여름철 식중독 '비상' 올해 환자 급증 예상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을 의미한다. 비슷한 질환으로 '장염'이 있는데, 장염은 대장이나 소장엔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며 대개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식중독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건수(환자 수)는 2013년 65건(1693명), 2014년 112건(2868명), 2015년 96건(3008명), 2016년 120건(3429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특히 폭염이 이르게 시작되고 강우성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0도를 육박하는 고온과 장마로 인한 습한 기후 때문이다. 고온다습한 기후는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환경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다니는 쥐, 비둘기, 모기 등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식중독은 원인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하고 세균성 식중독은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세분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동물성, 식물성, 진균성(곰팡이류) 자연독과 인공 화학물이 있다. 이 중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90% 이상이 세균성 식중독으로,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구균, 살모넬라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이다. 보고되는 수는 적지만 치명적인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이나 장관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마다 급증하는 비브리오균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증식하기 시작해서 20~37도의 온도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해 많은 어패류를 감염시킨다. 이 때 바닷가에서 채취한 생선이나 조개, 굴 등을 익히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비브리오균 중 '비브리오 볼니피쿠스'에 의한 감염은 치명적으로 비브리오 패혈증을 유발하는 이 균은 구토, 설사 등 장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다가 피부 반점, 물집, 전신통증과 함께 팔다리의 괴사가 일어나며, 증세가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야채, 도축과정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급식시설 현장점검.

일찍 찾아온 폭염·강우성 호우 계속됨에 따라

자연 회복되는 경우 많으나 심각하면 입원치료 필요

장 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 사망 가능성

서 오염된 육류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에서 발생하며 설사, 복통, 구토, 탈수 등을 일으킨다. 여름철 상온인 30~35도에서는 대장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꼽히고 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은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며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독소가 상부 소화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통해, 하부 소화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으로 ▲30초 이상 세정제를 사용해 손 씻기 ▲중심부 온도 75도(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이상 익혀먹기 까지 충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로 정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선민 교수는 "하루에 6~8회 이상 설사를 하거나 대변에 혈흔이 발견 되는 경우, 이를 이상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 경우, 소변 양이 급격하게 줄거나 하루 이상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열이 동반된 설사로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시야가 흐려지거나 근력저하 및 손발 저

림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식중독의 치료는 대증요법으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 회복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세가 심각하면 입원치료가 필요 할 수 있다. 설사나 구토가 계속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액 보충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수분을 보충해주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상태라면 미음이나 죽과 같은 유동식을 조금씩 자주 먹고 커피, 코코아, 콜라, 우유 등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사제는 함부로 사용하면 장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 회복이 지연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김 교수는 "보통 식중독 환자는 보존적 치료 하에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나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는 용혈성 쇼크 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어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51기관 선정

복지부, 12월 기관 최종 발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기존 41개보다 많은 51개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역별 신규 신청기관은 ▲서울권 순천향대 부속서울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경기서북부권 인제대일산백병원 ▲경기남부권 카톨릭대성신센트럴병원 ▲충남권 을지대병원 ▲경북

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균관대삼성정원병원 등 8개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이번 지정 평가에서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 평가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

###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

## 다리 등 허가받은 부위에만

사용 후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피부 보호 가능

제모기는 겨드랑이, 다리 등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제모기를 사용한 후 일주일 동안은 사용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많아지는 제모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2일 안내했다.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아 내는 방식의 공산품과 레이저, IPL 광원(이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이 자라지 않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뉘어진다.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털을 만드는 피부 기관인 모낭에 레이저 등 광선을 쬐어 열을 발생하게 하고, 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모기 포장에는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매 전 내용을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다.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등 광원의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돼 있어 레이저 등 광원 흡수량이 많아지면 화상, 변색 등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겨드랑이, 다리 및 인종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 등 광원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에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 피부가 예민한 상태가 되어 제모 후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제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제모 할 부위는 화장품 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린 후에 제모해야 하며 제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왁싱 등 물리적으로 털을 뽑거나 필링해서는 안 된다.

제모기 사용부위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 후 약 1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또 제모기 사용 후에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쉽기 때문에 땀 냄새 제거제나 각질 제거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 1주일간은 부드럽게 샤워하거나 세안해야 한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는게 좋다.

식약처는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인지 여부에 의해 피부가 예민한 상태가 되어 제모 후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

/뉴스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